겉모습 달라도 한목소리로 "가갸거겨"

신길복지관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실' 수료식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흥겨운 '포트락 파티' 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느라 고생했어요." 신길복지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수료식'에는 50여 명의 여성들이 참여, 수료증을 받고 포트락 파티를 즐겼다. 이들은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할 작정이다.

11월 28일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 3층 강당. 앞쪽으로 '한국어교실 수료식'이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그리고 강당에 준비된 의자에는 여성들이 약 50여명 앉아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금발 여성, 중국말을 쓰는 여성, 동남아 언어를 쓰는 여성 등이 섞여 있다. 각기 다른 외양을 한 그들이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그렇지만 검은 머리, 검은 눈, 노란 피부로 대표되던 한국인의 이미지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날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그 속에서 온전하게 한국 땅의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결혼이민자'라고 부른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 수료증을 드리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어교실 담당 김유미 복지사의 말과 함께 수료식과 잔치가 시작됐다. 비록 종이 조각 하나일지라도 수료증은 그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다. 수료식과 함께 벌어진 잔치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손수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와서 나눠먹는 '포트락 파티(Pot-Luck Party)' 형식이었다.

"어머나, 이게 뭐에요?"

"아, 이것은 러시아 전통 스프에요."

서로 고향이 다르다 보니 가지고 온 음식도 천차만별이다. 각자 원래 쓰던 언어도 각양각색. 하지만 한국어로 하나되고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 그들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가득하다.

사실 이들 중에는 중국 조선족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이 많다. 그들은 외모상으로는 그저 평범한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김 따지아나(25)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 전 한국 땅에 온 따지아나씨는 고려인 4세다. 한국 말도 어지간히 잘 한다. 고향에서부터 잘했냐고 묻자 고개를 흔든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왔어요. 여기 복지관에 온 것은 어떤 학원에서 돈 주고 말 배운 후에요."

딸 세연이(4)를 데리고 한국어 교실에 다녔다는 따지아나씨는 "수업 하면서 본 자료 사진에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똑소리 나는 텐 마리나(32)씨는 내친김에 복지관에서 마련한 겨울방학 한국어 특강을 듣고는 한국어능력시험까지 치를 작정이란다. 한국어 공부에 재미를 붙였더니 욕심이 생겨 하는데까지 해보기로 한 것.

신길복지관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 현재는 초급, 중급1, 중급2 3개 반으로 각각 20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반 배정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한국 땅에 살고 있어서?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아무래도 결혼한 '아줌마'들이다 보니 아이 한 둘씩은 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데리고 다녔다는 여성들도 꽤 된다. 이 여성들의 고민은 당연히 자신들보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좀 더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터.

러시아에서 한국에 온지 6년 됐다는 다냐(27)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단다. 말하고 듣는 것은 어지간한 눈치로 배웠지만 글을 읽을 줄 몰라 답답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내년이면 유치원에 들어가야 할 딸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다냐. 아이 유치원 입학 서류를 떼다 보니 서툰 한국어로는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위기 의식이 강하게 들었단다.

신길복지관 김유미 복지사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 생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면서 "빨리 언어를 습득해 현지화 되는 과정이 이들의 행복한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흔히 시골에만 '외국인 며느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 여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 글을 배움으로써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 가능성을 신길복지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고창군사회복지관 문 활짝

노인복지센터 기능 갖춘 다목적 시설로 조성

전북 고창군에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을 실천할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이 11월 29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 대통합신당 정균환 최고위원, 이강수 고창군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가 지역민들에게 소금 굽는법과 한지 뜨는법을 가르쳐 민생에 도움을 준 것이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시초"라며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뻐해주며,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과 평온한 마음으로 법보시와 물질적 보시를 행해 각박한 현실을 윤택케 하는 것이 불교복지사업"이라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운사 지부가 운영하게 될 고창군종합복지관은 2만㎡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역주민들과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갖춘 지역밀착형 다목적 복지시설이다.

이번 고창군종합복지관 개관으로 불교계는 고창 지역 복지시설 위탁 · 운영 및 포교에 유리한 자리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시설이 전무한 고창군은 노인 인구가 30%에 이르고 있는 지역 현실을 감안, 매년 군 예산의 10%인 340억을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관 개관을 시작으로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복지시설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고창군 노인회에 자비의 쌀 10kg들이 1000포대를 기탁했다.

고창/글 · 사진=조동제 전북지사장

⑥ 월곡청소년센터 이남재 관장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월곡동에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었다. 그러던 곳이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 건물을 짓느라 발파작업을 하는지 월곡동 땅은 한 시간에도 몇 차례나 '쿵' 소리를 내며 울렁거린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빨간벽돌건물' 월곡청소년센터. 또 이곳에 남아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열심히 궁리하는 이남재(46·사진) 관장. 칼바람과 함께 불어닥친 월곡동 개발 바람에 센터도 그도 끄떡 않는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

"마음까지 보살펴야 복지죠"

"이곳 참 많이 변했죠. 길도 넓어졌고 좋은 건물도 들어섰죠."

너무나 변해버린 월곡동을 보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걱정부터 들었다. 이 관장은 "새 아파트 대신 옆 동네 장위동 사글셋방으로 대거 옮겨갔다"며 점점 내몰리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근황을 전했다.

월곡청소년센터는 말이 '청소년센터'지 지금껏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주말이면 인근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밑반찬도 보내는 등 지역사회 버팀목이 됐다.

이 관장은 1999년 12월 월곡청소년센터 관장직을 맡았다. 그는 어떻게 월곡동에 들어오게 됐을까. 이 관장은 인도철학과 82학번, 열혈 운동 청년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불교정신으로는 시대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4년부터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종무원으로 근무했다. 또 갑자기 이 관장은 홀연히 일본으로 떠났다. 1997년부터 2년간 수학한 교토불교대학에서 '복지'에 눈을 번쩍 뜨게 됐단다.

일본 교토불교大 유학중 복지에 눈 떠
혈액암 투병중에도 복지의 길 꾸준히

"공부가 하고 싶어서 갔는데 일본 사찰복지를 보고 느낀게 많았습니다. 사찰이라면 어디나 복지시설을 운영 ·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동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사실 이 관장은 다른 사람의 복지 보다는 자신의 건강 돌보기에 매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몇 해 전 면역력에 이상이 생겨 혈액암 판정을 받았던 그다. 이제는 건강이 좋아져서 일도, 참선 수행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때는 정말 암담했다고 한다.

"병났을 땐 참 힘들었지만 저절로 '보왕삼매론'의 '병고로써 약을 삼으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지금은 되려 병을 고마워하고 있는 걸요."

그렇게 '병 있음을 탓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는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까지 겸임하고 있다. 경북 문경에 있는 식구들은 그에게 "다 그만두고 시골에서 건강 챙기는 일이나 하자"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불교복지의 큰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월곡청소년센터도 그렇고 지구촌공생회 우물사업도 그렇다.

이왕 선택한 복지의 길, 그는 '정신복지'로 회향할 수 있도록 월곡동에 남고 싶다고 한다. 복지는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정신적 영역까지 보살펴 주는 것이라 믿고 있기에.

"저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줄 아는 복지사로 남고 싶습니다. 불교의 정신 영역을 복지현장에 접목시키는 '정신복지'의 시작도 말 한마디부터라 생각해요. 마음을 다잡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복지입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조기유학생 모집
초6 · 중 · 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제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림

한국 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